6-Episode Seasonal Series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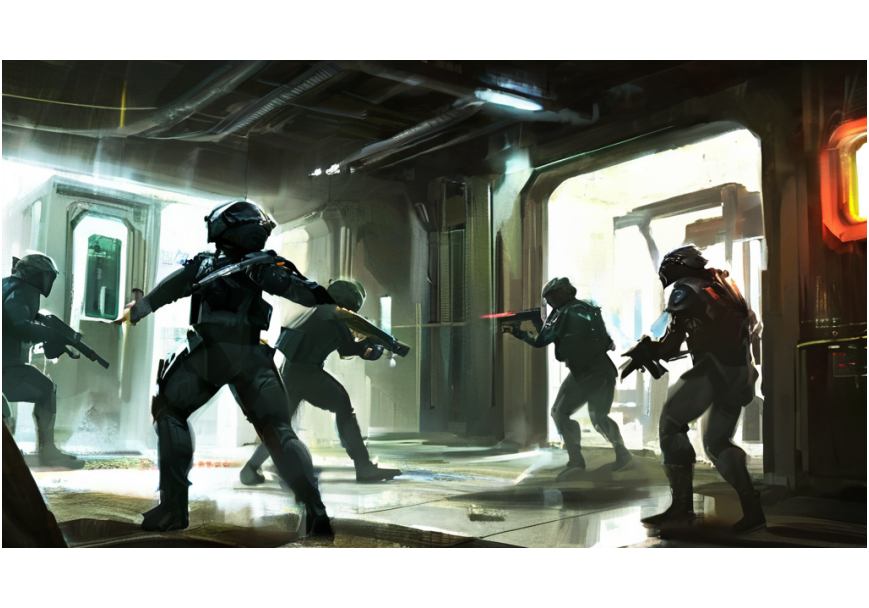
바이크를 타고 나타난 것은 태웅이었다.

“원장님 수술은 끝낸 거야?”
“응. 내가 조종할게.”

태웅이 라이딩 장치를 켜며 말했다. 여기서 조종한다는 것은 태웅이 오리엔티스 대원들에게 라이딩을 해서 원격으로 조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치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소연이가 의식이 계속 떨어지는데 괜찮을까?”
“대장! 나 괜찮아! 연결해줘!”

동녘의 몸에 들어간 소연의 의식이 동녘을 통해 소리쳤다. 소연의 확인을 듣자마자 태웅은 라이딩 장치의 활성화 버튼을 눌렀다. 모든 대원들의 목 뒤에 부착된 소형기기가 활성화되고, 태웅이 원격으로 대원들을 조종해 소연 군단에 제대로 맞서기 시작했다.



직전까지만 해도 소연 군단에게 압도적인 화력 차이로 밀리던 오리엔티스 대원들이었지만, 태웅의 원격 조종이 시작되자 소연 군단이 슬슬 밀려나기 시작했다.

‘나 이거 머릿 속이 너무 복잡한데. 이거 뭐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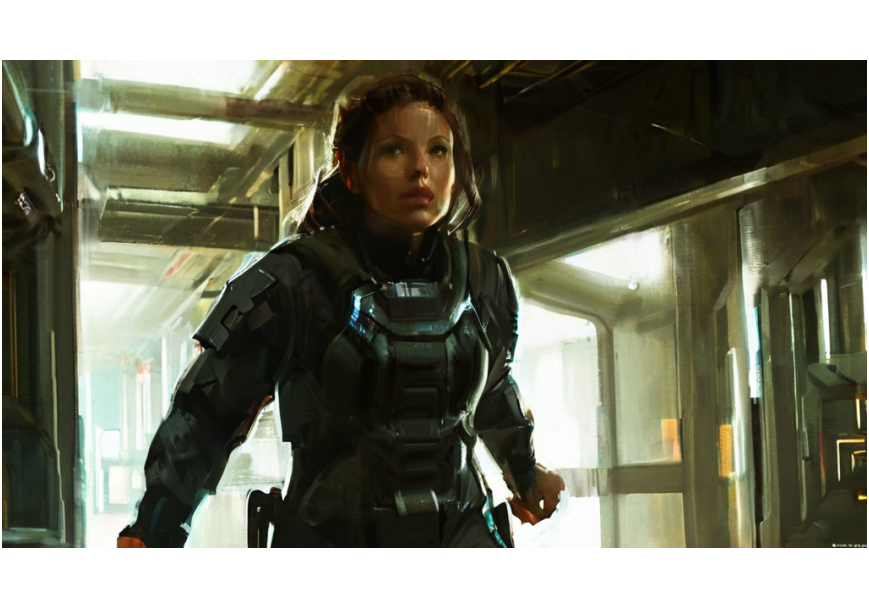
이런 식으로 원격 조종 되어 싸워 본 경험이 없던 동녘은 갑작스러운 원격 조종에 혼란스러워졌다. 소연의 의식이 동녘을 달래주며 조언했다.

‘우린 이제 태웅이야. 머릿 속을 비워. 네 맘대로 움직이지 마. 태웅이가 조종하도록 맡겨.’
‘일단은 알겠어요.’

동녘은 태웅의 조종에 몸을 맡겼다. 마치 바닷 속을 부유하는 해파리가 된 것처럼 몸에 힘을 풀자 태웅의 조종에 따라 동녘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동녘이 보기에, 태웅의 조종이 시작되고 오리엔티스 대원들의 공격이 훨씬 잔혹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오해가 아니라는 듯, 태웅이 조종하는 동녘의 몸은 소연의 클론 중 하나의 머리를 그야말로 도륙해 버렸다.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내 명령대로 해. 이건 껍데기일 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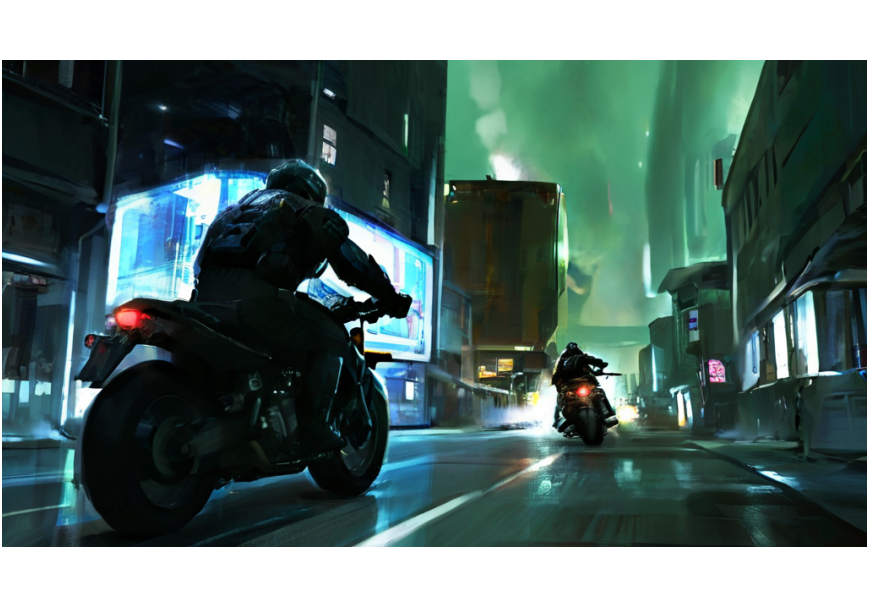
박살난 소연 머리의 잔해들을 보며, 태웅이 차갑게 속삭였다.



파일럿의 기량 차이 때문인지 소연의 군단이 오리엔티스 대원들에게 밀리기 시작하자, 승산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지휘관 소연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더니 실험실에서 빠져나갔다.

◆

태웅은 군단을 지휘하던 소연이 바이크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바이크를 타고 뒤쫓기 시작했다. 다른 대원들도 빠르게 차량에 탑승해 태웅을 뒤따랐다.



태웅이 탄 바이크와 오리엔티스의 차량들이 얼마나 소연을 뒤쫓았을까. 동녘은 어느새 자신이 살던 동네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연의 몸을 한 누군가가 굳이 이곳으로 온 이유가 뭘까 의아해 하면서, 동녘은 의식 속의 소연에게 말을 걸었다.

‘어? 여긴 우리 동넨데요. 소연 씨 의식 있어요?’
‘…아직은’
‘좀만 더 버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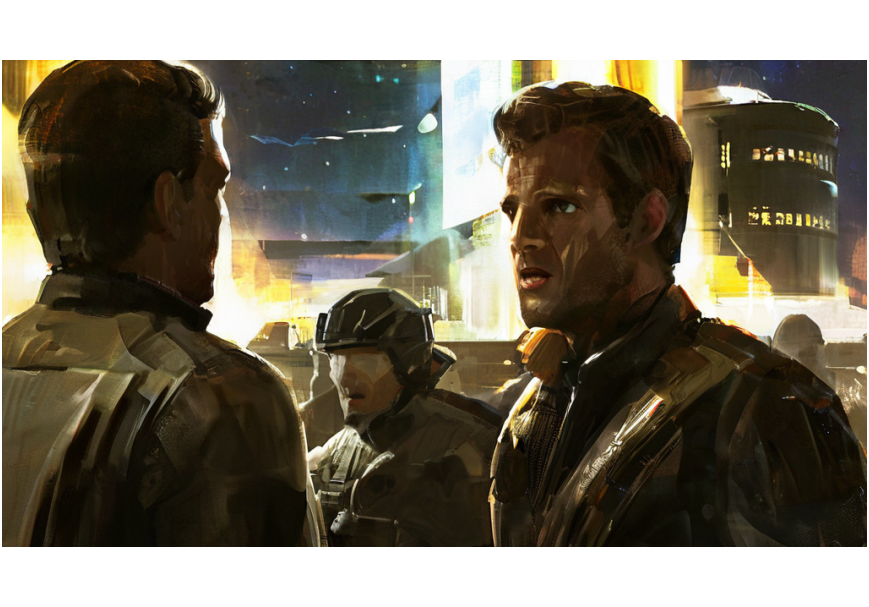
군단을 지휘하던 소연이 자취를 감추자, 태웅이 탄 바이크와 차량들이 일제히 화장터 앞에서 멈춰 섰다. 탐지기를 든 채 태섭이 나오며 말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신호도 잡히질 않습니다.”

동녘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저… 여기 우리 집인데요.”
“뭐?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태웅이 동녘의 멱살을 잡으며 위협하듯 물었다. 동녘은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 저는 모르죠! 여기 그냥 화장터일 뿐이에요.”

탐지기를 들고 근처를 조사하던 태섭이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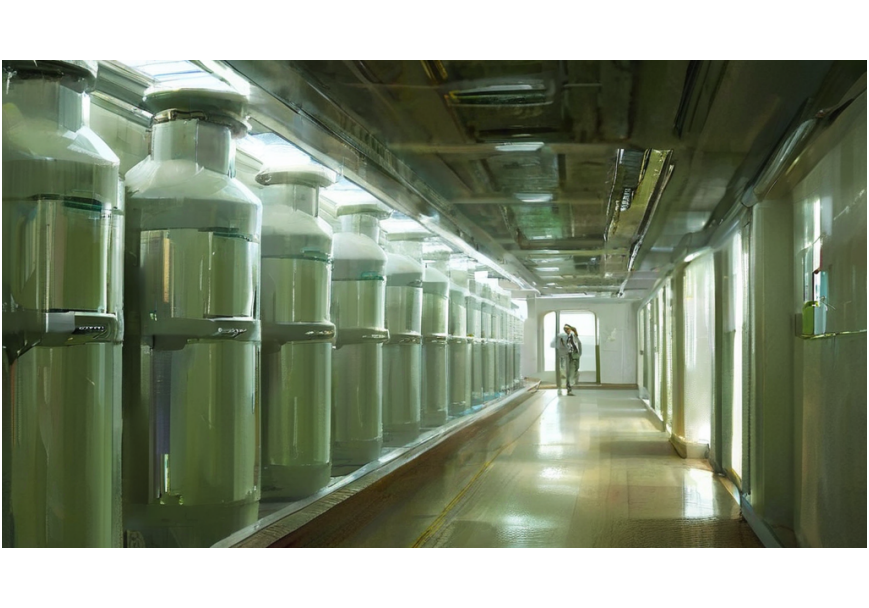
“가마 안 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네? 설마!”

태섭이 가리킨 곳을 따라가 보니, 불이 나오는 곳 옆에 또 다른 작은 입구가 있는 게 보였다.

“아니, 저도 이런 건 처음 봐요! 진짜에요.”
“나중에 얘기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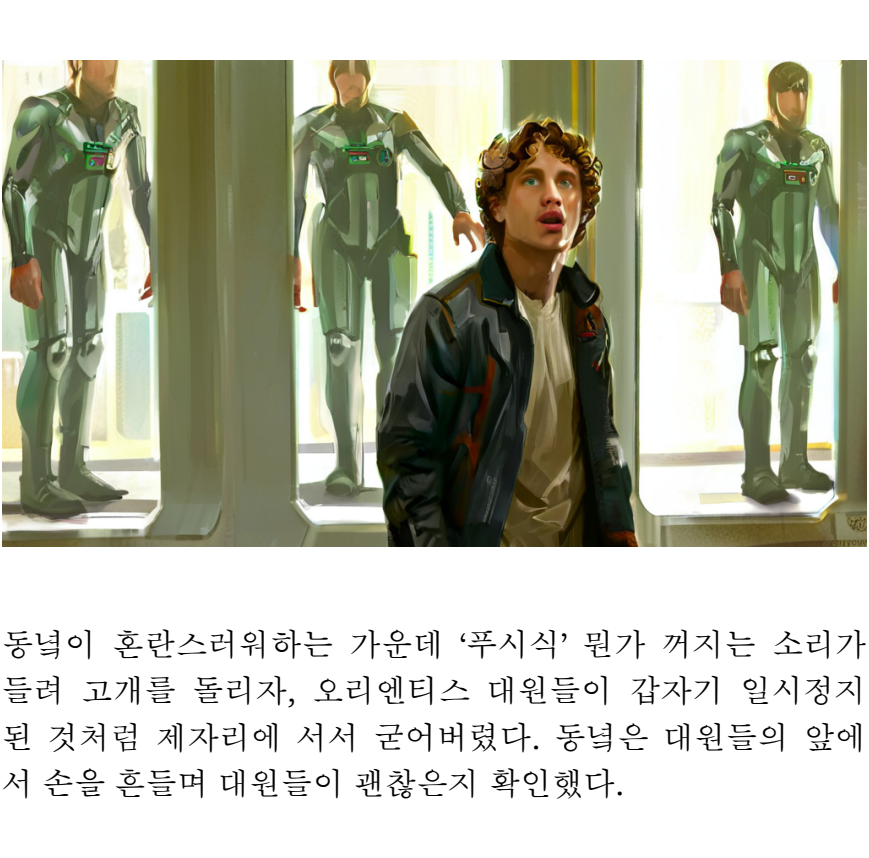
태웅이 늑대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날카롭게 대답하며 먼저 좁은 입구로 들어갔다. 안절부절 못하던 동녘이 뒤따랐다.

길게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지나, 태웅이 긴장하고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큰 캡슐들이었다. 대규모의 지하 기지가 통로 너머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태웅은 놀라는 기색 없이 노련하게 대원들에게 지시했다.



“일단 흩어져서 소연의 몸부터 찾아줘!”

동녘은 대원들과 함께 지하 기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넓이 나간 듯, 놀란 표정으로 캡슐들을 둘러보는데 개중에는 어제 납치되었다는 박광훈의 신체도 있었다. 놀라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려는데 동녘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다. 동녘이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무언가가. 동녘은 천천히 다가가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동녘이 잘못 보거나 착각한 것은 아니었다. 동녘이 발견한 것은, 어린 동녘부터 청년 동녘까지 성장 단계별로 쭈욱 나열된 동녘 자신의 클론들이었다.



동녘이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푸시식’ 뭔가 꺼지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자, 오리엔티스 대원들이 갑자기 일시정지 된 것처럼 제자리에 서서 굳어버렸다. 동녘은 대원들의 앞에서 손을 흔들며 대원들이 괜찮은지 확인했다.

“뭐야? 다들 왜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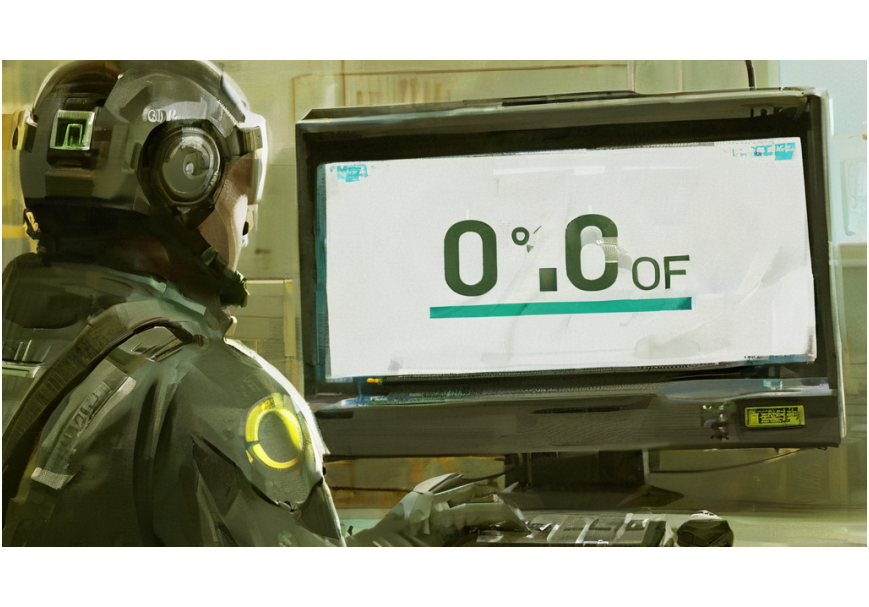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동녘은 태웅에게 물었다.

“태웅 대장? 뭐 잘못 건드린 거 아니에요?”

태웅 역시 멈춰 있었다.

“소연 씨! 내 말 들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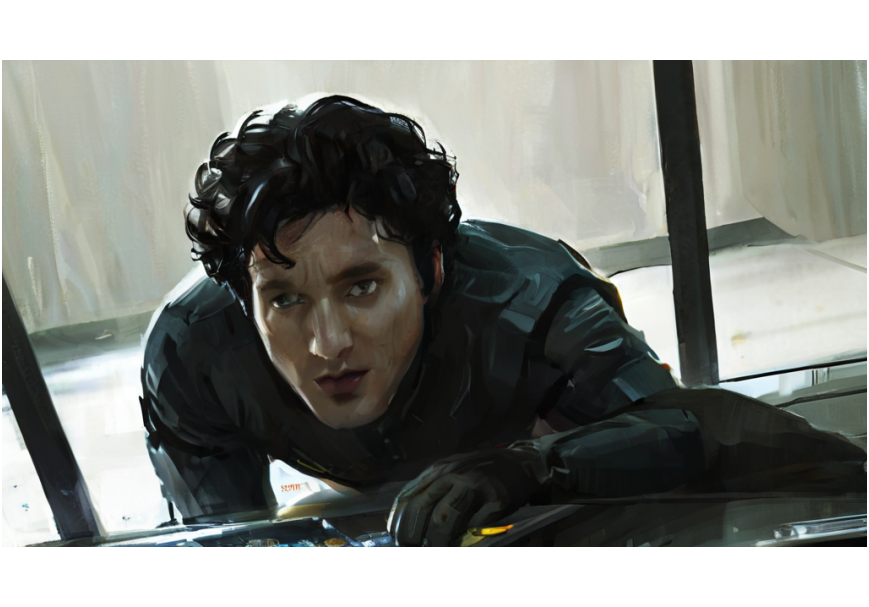
동녘이 의식 게이지를 볼 수 있는 장치를 확인해 보니, 소연의 의식 게이지가 0%라 떠 있었다.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일까, 갑자기 소연의 두개골이 바닥에 쿵 떨어지는 이미지가 동녘의 머릿 속에 떠올랐다. 혼란스러워진 동녘이 머리를 부여잡고 정신을 가다듬으려는데, 동녘의 내면에 있는 소연이 눈을 감는 것이 느껴졌다. 동녘은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소연 씨! 소연 씨! 안 돼요! 안 돼! 일어나요!”

그때 누군가 동녘의 뒷목에서 장치를 제거한 뒤, 날카로운 길다란 케이블이 연결된 송곳으로 장치가 제거된 뒷목을 찔렀다. 동녘은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바닥에 고꾸라졌다. 쓰러진 동녘의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뒷목에 장치가 달린 소연이었다. 손에 들린 송곳은 동녘의 몸 속에서 소연의 의식을 추출하기 위한 장치이리라.



소연은 동녘을 찌른 그 송곳의 케이블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송곳으로 자신의 목 뒤를 찔렀다. 소연과 동녘이 케이블로 연결된 모양새가 되자, 소연은 손목 장치의 소울라이딩 버튼을 눌렀다.

소울라이딩이 비활성화 되자 뒤에서 지희, 네모, 그리고 네모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소연의 의식 좀 빨리 체크해줘.”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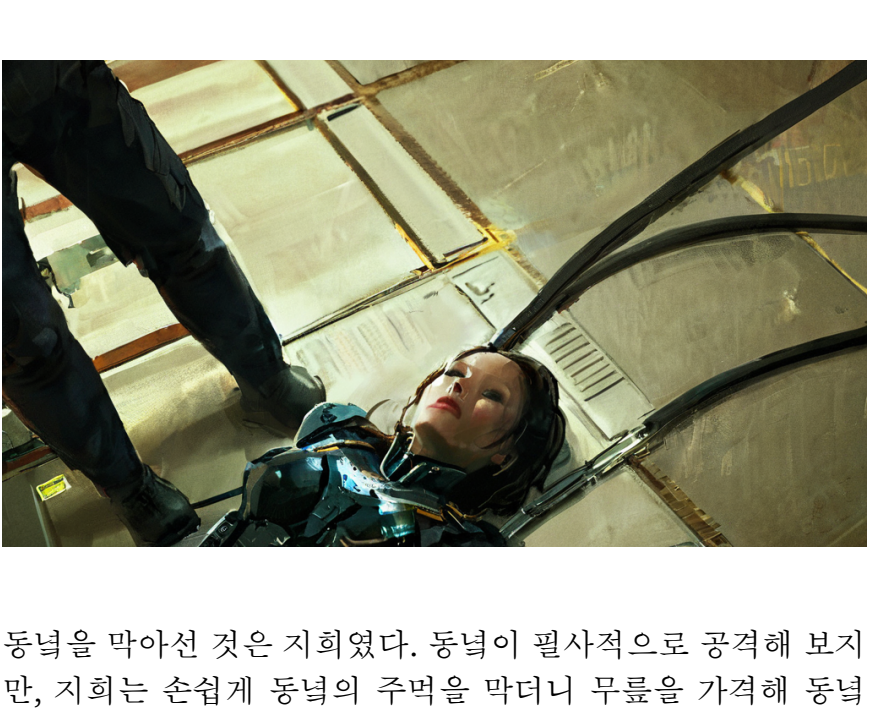
지희가 대답하며 소연 몸체의 게이지를 살폈다.

“문제 없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바로 시킬까요?”
“아니, 아직이다.”

곧 소연의 의식 게이지가 100%로 차올랐다. 하지만 소연은 일어날 낌새를 보이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동녘에 옆에 누워있는 소연을 보고, 소연의 뒷목에 연결된 케이블이 자신의 뒷목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동녘은 소연이 숨을 쉬는지 우선 확인해 보았다. 소연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숨을 돌리고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따라 지희와 네모를 발견했다.

“당신들 뭐야, 소연 씨를 어떻게 한 거야? 의식을 옮긴 거야?”

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녘은 뒷목에서 송곳 케이블을 뽑더니, 네모를 향해 돌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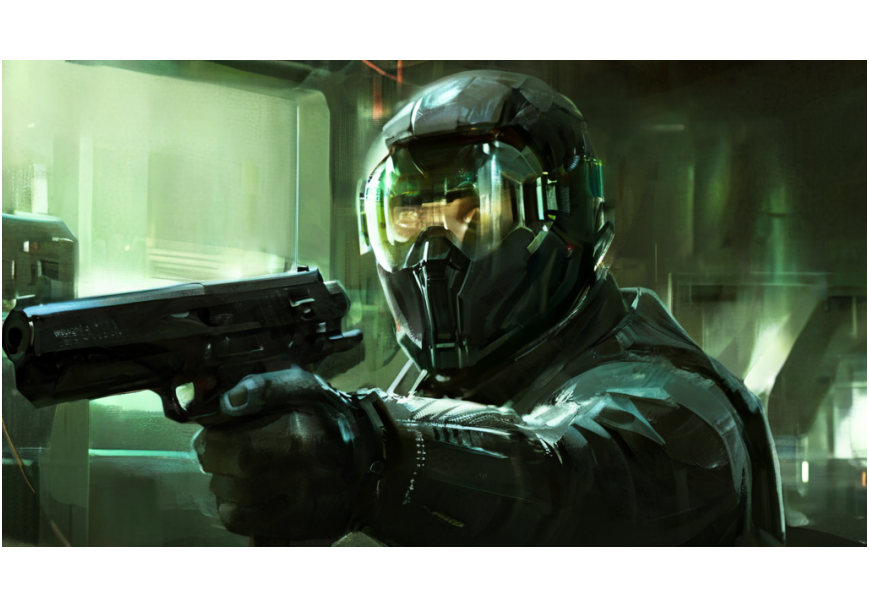
동녘을 막아선 것은 지희였다. 동녘이 필사적으로 공격해 보지만, 지희는 손쉽게 동녘의 주먹을 막더니 무릎을 가격해 동녘을 무력화 했다.

“알았어, 알았어. 모두 합시다!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다들 멈춰 있어요?”
“내가 소울라이딩도 하지 말고 이곳과 엮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네모의 말에 동녘이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엮이고 싶어서 엮인 게 아니라요!”

네모가 동녘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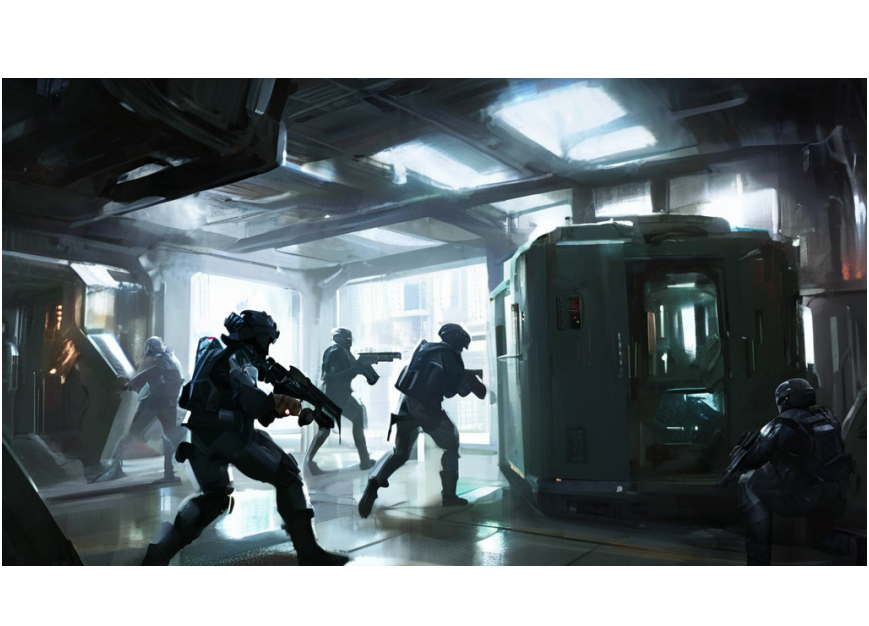


“너는 이미 오리엔티스에게 노출된 거겠지? 그럼 여기까지다.”

네모가 총을 꺼내 동녘의 이마에 겨눴다. 여기까지구나. 동녘은 눈을 감았다.

탕! 총성이 실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동녘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내가 왜 살아있는 거지? 네모의 배가 붉게 피로 물들더니, 네모가 힘 없이 자리에서 고꾸라졌다. 쓰러진 네모의 뒤로, 한재호 원장이 지팡이를 짚은 채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네모가 쓰러지자 중무장한 군인들이 실험실 안으로 들이 닥치며 지희를 비롯한 네모의 부하들에게 총을 겨눴다. 빠르게 상황을 판단한 네모 대원들은 각자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했다.



군인들이 네모의 부하들을 연행해 가는 동안, 한재호 원장은 캣츠아이를 조작해 캣츠아이를 비활성화 했다. 이 캣츠아이가 바로 오리엔티스 대원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력화 한 장치였던 것이다. 캣츠아이가 비활성화 되자 일시정지 된 것처럼 멈춰 있던 오리엔티스 대원들이 각자 정신을 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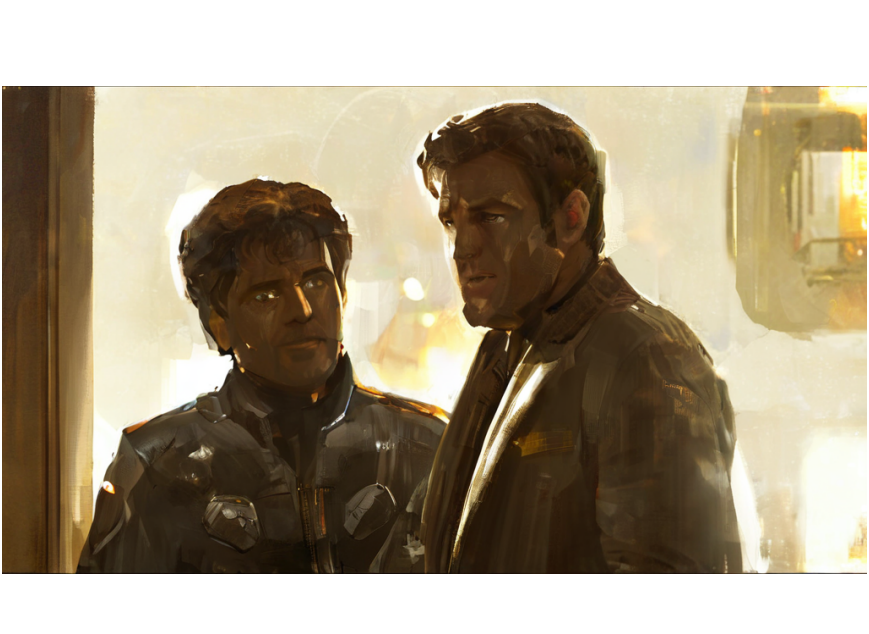
의식이 돌아온 태웅이 놀란 표정으로 한재호 원장을 바라보았다.

“원장님! 여긴 어떻게?”

한재호 원장이 대답하기도 전에, 동녘이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

“아, 대장! 원장님이 완전 짱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죽나 싶었는데 탕! 하더니 원장님이 딱! 하고.”

치수가 한심하단 표정으로 동녘에게 말했다.



“됐고, 소연이는 어떻게 됐어?”
“여기 살아있어요!”

동녘이 바닥에 쓰러진 소연을 흔들어 깨웠다.

“소연 씨! 괜찮아요? 의식 돌아왔어요?”
“응, 그런 것 같아…”

소연이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늘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재호 원장이 네모의 상태를 확인했다. 숨을 쉬고 있는 걸 확인한 한재호 원장은 태웅에게 말했다.

“태웅아. 이 친구도 얼른 데려가자.”
“아직 살아있나요?”

한재호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누구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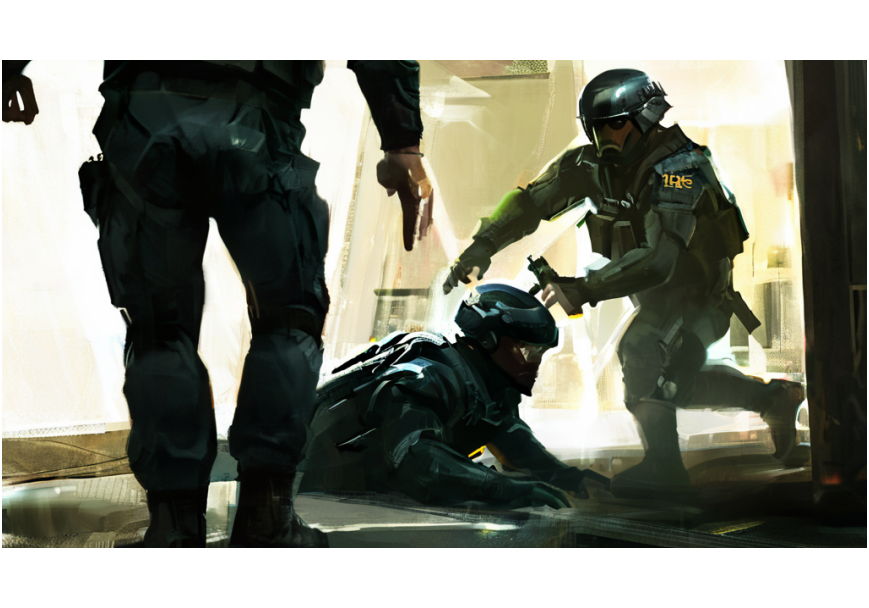
한재호 원장은 말로 대답하는 대신, 네모의 가면을 벗겼다. 그대로 동녘의 호흡이 멈췄다.

“할아버지….”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동녘을 바라보았다.

“동녘, 너희 할아버지야? 너 이걸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거냐?”
“아니, 저는 몰랐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아파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태섭이 멀리서 소리쳤다.



“이쪽에 동녘의 클론이 다수 있습니다!”
“너! 어쩐지 수상하다 했더니, 네모에서 보낸 첩자였구나! 그렇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 것도 몰라요. 서바이벌도 돈 때문에 간 거고, 어제 행사장도 할아버지 클론 해드리려고 간 거예요!”동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우선 동녘도 체포해! 같이 연행해 간다!”

Continued to ep.11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